

최태원 “사회적기업연구원 만들어 사회적가치 창출 기여”

(SK그룹 회장)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서 ‘기업의 역할’ 연설 “사회적 기업 운영... 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앞장”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18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GEEF)’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18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GEEF)’에 참석,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SK그룹

최 회장은 “가난과 불평등, 환경오염 등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사회적 가치를 기업 경영에 반영,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동시 추구 ▲인프라의 공유 ▲사회적기업과 협력 등 SK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측정하고 추구하는 DBL(Double Bottom Line)을 시도하는 것이나 SK 주요 관계사 정관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추가한 것 모두가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은 SK 자산을 단순히 공유하는 것을 넘어 사회가 SK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는 공유인프라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해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 전문가인 사회적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기업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사회적기업을 돕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이 분야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 가방이 어떤 가방인지 아느냐”며 돌발 퀴즈를 냈다. 객석에서 한 청중이 아이돌 그룹 ‘빅뱅’이 메는 가방이라고 답하자 최 회장은 “정확히는 방탄소년단으로, 사회적기업 모어댄이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모어댄은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자동차 가죽 시트 등을 활용, 가방과 지갑 등 패션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는 친환경 업사이클링 업체다.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는 공공재적 특성이 있어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워 시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기업이 만든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 그 가치에 비례해 보상해 주는 사회적과인센티브(SPC)를 지난 2015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SPC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연구하는 재단을 올 상반기 중에 설립한다. ‘사회적기업연구원’(가칭)으로 출범할 이 재단에는 내부 사회공헌 전문인력과 함께 외부 자문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끝으로 “SK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니 더 많은 영리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과 반기문 세계시민센터가 빈곤퇴치, 불평등 해소,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생태계 보호 등 글로벌 사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최근 사회적 가치를 경영 키워드로 삼고 있는 최 회장을 발표자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포럼에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 글로벌 인사와 각계 전문가와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삼성 금융계열사 사장도 50대

생명-현성철·화재-최영무 사장 내정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8일 오전 각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현성철 삼성화재 전략영업본부장, 최영무 자동차보험본부장을 신입 사장으로 내정했다.

두 사장 후보 모두 50대로 지난 삼성그룹 인사에서 강조된 60대→50대로의 세대교체에 따른 분위기 쇄신이 단행된 결과로 분석된다.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내정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SDI에서 구매전략팀장과 마케팅실장 등을 지낸 후 지난 2011년 삼성카드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을 거쳐 삼성화재 전략영업본부장을 역임했다.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내정자는 고려대 식물보호학과를 졸업하고 삼성화재 인사팀장과 전략영업본부장, 자동차보험본부장(부사장)을 지냈다.

두 사장 내정자는 내달 말 주주총회를



현성철 삼성생명 신입 사장 내정자 / 최영무 삼성화재 신입 사장 내정자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선 그간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유일한 50대인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이 당초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의 사장직을 맡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이번 인사로 인해 원 사장은 당분간 삼성카드 사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연임에 성공한 원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3월까지다. /이봉준 기자 bj35sea@

“LG사이언스파크, 창의 발휘 공간 될 것”

구본준 LG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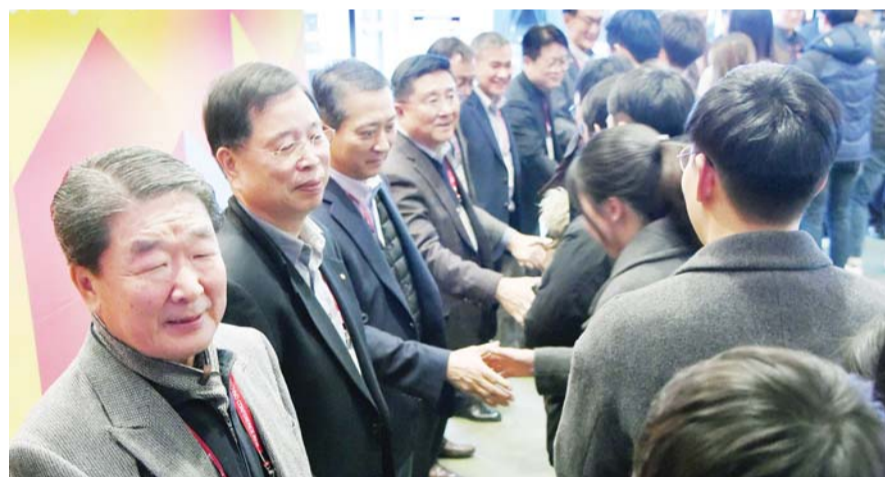
‘LG 테크노 콘퍼런스’ 참가

구본준 LG 부회장은 지난 7일 열린 ‘LG 테크노 콘퍼런스’에서 “세계 수준의 융복합 R&D 단지인 LG사이언스파크는 최고의 인재들이 마음껏 연구하며 창의를 발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LG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국내 이공계 석·박사 과정 인재 37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LG 테크노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회장은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융복합의 빠른 진화는 앞으로 여러분과 같은 R&D 인재들이 꿈을 펼치는 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LG와 함께 고객의 삶을 바꾸고



지난 7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LG 테크노 콘퍼런스’에서 구본준 LG 부회장(왼쪽 첫번째)이 석박사 인재들과 악수하고 있다. /LG그룹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LG 테크노 콘퍼런스’는 우수 R&D 인력 확보를 위해 LG 최고경영진이 직접 인재들에게 회사의 기술혁신 현황과 트렌드, 미래 성장사업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하우시스, LG유플러스, LG CNS 등 7개사 CEO와 CTO(최고기술책임자) 등 80여명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정은미 기자

‘부품 밀어내기’ 현대모비스 과징금 5억

공정위, 前 대표이사 등 고발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품 밀어내기’를 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직 대표이사과 부사장 등 퇴직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전직 임원 2명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 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의 피해를 알고서도 밀어내기를 지속했다. 현대모비스는 그룹감사(2010년, 2012년) 결

과, 대리점 협의회 간담회(2012년), 자체 시장 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이어갔다.

이 시기에 대표이사, 부사장은 그룹 감사 결과, 밀어내기가 전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과도한 사업 목표 설정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리점 대표들은 현대모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밀어내기 행위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밀어내기 금지 명령과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현대모비스 사례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강매 물량을 구분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법률이 정한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탈색·제모 등 기능성 화장품 심사제도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식약처장에 건의

중소기업계가 탈색, 제모, 피부 건조 완화 등에 쓰이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건의했다.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자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고령자용 식품’ 개발을 위한 기증·규격 마련도 요청했다.

의료기기 수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해외 인허가 지원도 확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류 처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성택 중소기업회장은 “인공지능(AI)·의료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치료, 원격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규제 해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헬스케어 분야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달라”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5월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염모제, 탈색·탈색제, 제모제, 탈모증상 완화 및 여드름성 피부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제품 5종,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 완화 및 탄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없게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2종 등 총 7종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새로 포함됐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제조·수입 전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기존 기능성화장품은 심사자료 제출면제 등 심사가 간결하다. 하지만 새로 추가된 기능성화장품들은 축적된 사례가 많지 않고 거의 모든 제품이 새롭게 심사를 받아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나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성분,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연구와 자료 축적 후 고시를 공포해 회사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요구다.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맞춤형 기준이나 규격이 없어 식품업체가 관련 식품 개발이나 제조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승호 기자 bada@